

■ 소식 ■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3월 25일 양곤에서 미얀마 세미나 개최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은 3월 25일 미얀마 양곤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고 시장이 개방된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의 통합 투자법 제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률들과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불명확한 규정, 당국의 실무 관행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언어적, 문화적 제약으로 정보가 부족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평 미얀마는 미얀마에서 3년 가까운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고객이 보다 안전하게 미얀마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 미얀마는 그간 쌓아온 실무 경험을 미얀마 현지의 고객 및 교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양곤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평의 경험을 고객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